광주 무보험 차량 활개

등록 10대 중 1대 꼴… 대포차도 상당수 포함

사고땐 물적피해 등 보상 길 없어

광주지역 등록 차량 10대 가운데 1대가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심을 질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가운데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대포차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고로 인한 애꿎은 제3의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구 2633건(총 등록 차량 3만3892대) ▲서구 1만142건(12만5504대) ▲남구 7461건(7만7488대) ▲북구 1만9267건(15만8344대) ▲광산구 1만2625건(14만5133대) 등 모두 5만2128건으로 광주 전체 등록 차량 54만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58일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기미가입자 차량도 ▲동구 132대 ▲서구 1021대 ▲남구 357대 ▲북구 3508대 ▲광산구 1015대 등 6033대에 이르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0일 이내에는 1만5000원을 부과하고 10일이 초과하면 하루 6000원씩 가산돼 최대 90만 원(158일)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년 보험료가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물론 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한 뒤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대포차들까지 늘면서 무보험 차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는 정부의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물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는 "장기 미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등으로 적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검찰 내사지휘 안받아"

광주·전남경찰청 지침…수사권 갈등 확산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광주지검 등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하기로 해 검·경의 수사권조정 논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3일 "경찰청이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모두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내려보냈으며 앞으로 이에 따라 검사의 내사 지휘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수사실무지침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중단·송치명령 권한을 경찰의 수사절차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때 경찰관의 불법 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경찰의 내사활동에 대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후에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거부했다. 검찰의 내사나 진정 사건은 접수단계부터 거부해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범위를 줄였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지침을 근거로 일선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에 보고해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청 수사국과 수사구조개혁팀에 수사구조 개선팀을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도 경정·경감급 간부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경찰서 팀장 20여명 등 전국 경찰서 팀장 286명이 경찰청에서 수사절차 정비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는 모든 수사에 관한 지휘권은 검찰에 있고 내사 지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정·탄원사건이 수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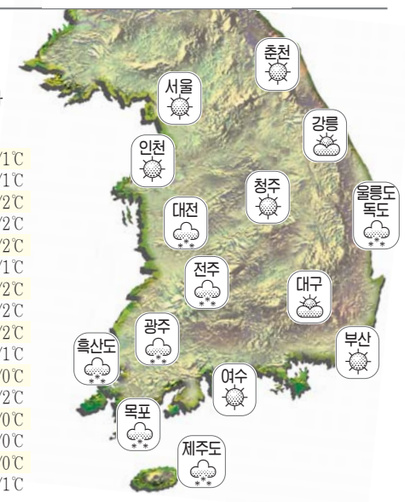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33분 달뜸 13시 31분 달짐 02시 58분

눈 와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다.

광 주	흐리고눈	-4/1℃
목 포	흐리고눈	-2/1℃
여 수	구름조금	-3/2℃
나 주	흐리고눈	-5/2℃
완 도	흐리고눈	-2/2℃
구 례	흐리고눈	-5/1℃
강 진	흐리고눈	-2/2℃
해 남	흐리고눈	-3/2℃
장 흥	흐리고눈	-4/2℃
순 천	구름많음	-4/1℃
영 광	흐리고눈	-5/0℃
진 도	흐리고눈	0/2℃
전 주	흐리고눈	-5/0℃
군 산	흐리고눈	-5/0℃
남 원	흐리고눈	-6/0℃
흑산도	흐리고눈	0/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3.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10:35 22:20	03:19 16:29
여수	05:50 17:48	12:02 23: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날 씨						
최저/최고	-4/3	-2/5	-3/6	-2/5	-2/5	-2/5

하루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로 느껴지는 강풍을 동반한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어린이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3일 광주시 남구의 한 아동병원에 엄마와 함께 온 어린이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기승

검출률 53% … 외출후엔 손 깨끗이 씻어야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지역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첫째 주 9.5%, 둘째 주 21.7%, 셋째 주 35.1%, 넷째 주에는 53.2%로 검출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으며, B형보다 중증을 나타내는 A형의 검출이 증가 추세여서 예방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3군 법정전염병인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고열과 두통이 주요증상으로 기침과 가래, 근육통 등을 동반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설 이후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예방백신을 맞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과 청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 서품식

10일 8000여명 참석 … 19년만에 체육관서 거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 교구장인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집전으로 거행되는 이번 서품식에서는 신도 등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제 5명이 사제품을, 신학생 8명이 부제품을 받게 된다.

지난 1993년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서품식을 거행한 이후 19년 만에 체육관에서 거행되는 이번 서품식은 교구 설립 75주년을 맞아 많은 신자들이 서품식에 참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